



‘해상비조도- 자유의 바람길’

역동적인 갈매기들의 날갯짓...해양문명으로의 비상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미국 작가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구절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문장이다.

기자 또한 대학 시절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간결하면서도 통찰이 번뜩이는 문장들이 주는 울림은 간단치 않다.

‘갈매기의 꿈’은 1970년에 발간된 이후 세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는 베스트셀러다. 지금까지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4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작가인 리처드 바크는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공군에 입대했다.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했고 이후 상업 비행기를 몰며 3000 시간 이상을 비행했다. 장공을 날며 비행했던 경험은 고스란히 ‘갈매기의 꿈’이라는 역작에 투영됐다.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목포 문예회관 본전시장 2층 벽면에는 거대한 갈매기 그림이 걸려 있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넓디넓은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갈매기는 꿈과 내일을 보여주는 것 같다.

광주전남문화재단 이사장인 정재경 문인화가의 ‘해상비조도’ 시리즈다. 평생을 남도와 서해 섬 마을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던 그에게 바다와 섬, 갈매기는 오랜 친구이자 말벗이었다. 신안 흑산종교장을 마지막으로 교직생활을 떠난 뒤에도 그는

문인화가 정재경 ‘해상비조도’ 국제 수목비엔날레 본전시관에 전시 ‘항해를 둘러싼 문명의 이웃들’ 주제와 부합...자유·꿈·이상 등 환기



‘해상비조도-자유, 자연 그리고 우리는...’

수목의 세계에 빠져 살았다. 최근에 인터뷰를 위해 만난 정 작가는 “한 마리 새가 되어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 문명의 이웃들이 있는 오대양 육대주를 수목으로 섭렵하고 싶은 열망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엔날레에 참가하게 된 것은 지난 2023년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자유, 자연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대형

수목담채 작품(갈매기)을 벽 전체에 전시한 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에 출품한 ‘해상비조도’가 비엔날레 ‘문명의 이웃들’이라는 주제에 부합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바다 위를 나는 새 그림은 꿈을 향해 비상하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세계 평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드넓은 하늘을 경계 없이 나는 새들을 보노라면 환희와 감격이 벅차오른다”는 작가의 말은



문인화가 정재경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보고나면 또렷이 실감이 된다.

윤재갑 총감독은 “국가와 영토 중심의 대륙문명권이 아닌 항해를 둘러싼 문명의 이웃들’이 공동으로 이룩한 해양문명권으로서의 수목화를 조명하려는 비엔날레에 그가 그린 ‘해상비조도’야말로 주제와 가장 부합한다”며 “항해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정 작가의 ‘해상비조’는 이런 이유로 이번 비엔날레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했다.

윤 총감독은 조선시대 화가 중 새를 가장 빼어나게 그린 이로 조지은 작가의 ‘매상숙조도’(梅上宿鳥圖·매화 가지 위에서 졸고 있는 새)에 견줘 정 작가의 작품을 ‘해상비조도’라고 붙였다고 했다.

‘해상비조도’는 ‘창공의 자유’, ‘날개의 우주’,

‘혼을 그리다’, ‘자유의 날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생의 갈매기가 날갯짓을 하며 광활한 바다를 건너는 모습은 역동적이면서도 눈부시다.

정 작가는 비상은 ‘자유의 무한한 관념’이라고 했다. ‘갈매기의 꿈’이 환기하는 진정한 자유와 더 높은 차원에 이르러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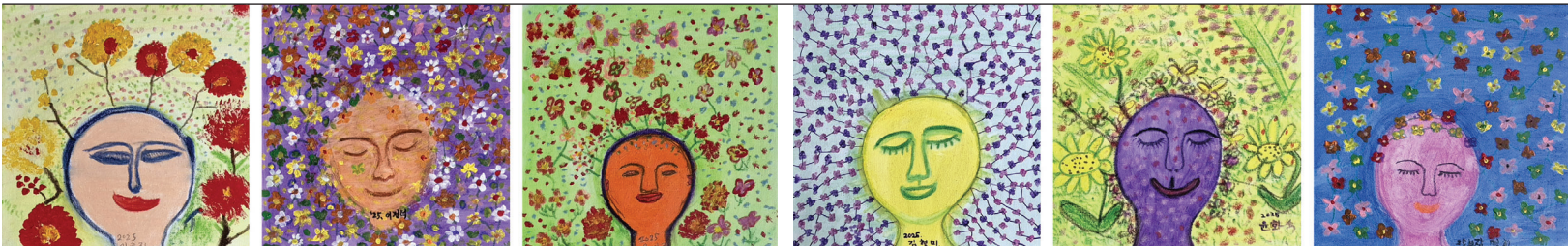
결국 그것은 수목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 내지는 궁극의 세계와도 상통될 듯 했다.

“수목의 정신은 자연과 마음을 합일하는 것입니 다. 여백의 미, 인격과 수양의 반영도 중요한 정신 이자 추구하는 가치이지요. 이를 작품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양과 여백에 대한 깨달음이 전제조건입 니다. 부단히 공부하고 수양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어요.”

그의 말에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일궈나가고 싶 은 열망이 느껴졌다. 그는 앞으로도 수련하듯 꾸준 히 창작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중유화와중유시(詩中有畫畫中有詩)라는 말 처럼 시가 그림이고, 그림이 시가 되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작품을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늘 동양고전 을 탐독하고 연구해 탁월한 사유를 작품에 투영할 생각”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정 작가는 화순에 작업실을 마련해 창작에 정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시에전북비엔날레, 한국서총광주지회창립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 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요새 잠을 통 못자네.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이 댈 소리당가?”

오월어머니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렸다. 시간이 흘러도 지난 연말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오월어머니들은 그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더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가슴을 쓸 어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다.

매주 수요일은 오월어머니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눈다. 매주 토요일이면 민주광장에 나가 깃발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쳤다.

오월어머니들의 다섯번째 그림농사 전시 ‘꽃이 핀 쪽으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10월 21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주홍 관장은 “어머니들은 정말 꽃을 좋아한다. 꽃무늬 옷, 꽃무늬 스카프, 꽃무늬 양산을 선호한다”

‘꽃이 핀 쪽으로’

오월어머니들 다섯번째 그림농사
10월 21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

며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서 오월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꽃이 핀 쪽으로’ 안내하는 문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좋아하는 어머니들은 그림 속에 손끝씨로 써 넣기도 했으며

반복해서 기도하듯 읽고 그렸다. 그러면서 온세상에 꽃이 피는 장면을 그려보기도 했다.

주홍 관장은 “어머니들은 눈을 감고 미소지으며 혼잣말로 ‘이쁘네 이빠!’말하고 그림을 그렸다”며 “순식간에 기도하면 꽃이 피는 그림들이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림을 그렸던 시간의 흔적은 그렇게 그림이라는 결실로 남았다. 오월이면 살아남은 좌절감에 들뜬 에 핀 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울컥했던 시간도 이제는 그림으로 남고, 먼저 떠난 사람을 향한 그리운 마음도 그림으로 남았다.

주홍 관장은 “오월어머니들의 그림은 기도이다”며 “어머니들의 기도가 승화돼 아픔이 치유되고 나아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대를 넘은 선율 ‘All Time Favorite 모차르트’

아미치 디 피아노 연주회...23~24일 전남대 민주마루

맑고 투명한 선율로 세기를 넘어 사랑받아온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 가을밤의 감성을 자극한다.

아미치 디 피아노가 오는 23~24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진과 강사진이 함께하는 연주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with 챔버앙상블’을 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All Time Favorite’. 모차르트가 남긴 27곡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시대와 세대를 아울러 가장 널리 연주되는 여섯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6명의 피아니스트가 이틀간 나눠 무대에 오르며, 12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챔버앙상블이 반주를 맡는다.

23일 첫날 무대는 경쾌하면서도 기품 있는 ‘피아노 협주곡 제13번 다장조 K.415’(피아니스트 임민경)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라단조 K.466’(김하은)은 모차르트 협주곡 가운데 드물게 단조로 쓰인 작품으로, 어둡고 극적인 색채가 두드러져 베토벤을 비롯한 후대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날 마지막 곡은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가장조 K.488’(신수경)이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특히 2악장의 아다지오는 모차르트 음악 중 가장 서정적인 순간으로 꼽힌다.

둘째 날인 24일은 밝고 우아한 분위기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다장조 K.467ha’(임현진)이 서막을 연다. 이 곡의 2악장 안단테는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삽입곡으로 대중적으로도 유명하다. 이어지는 ‘피아노 협주곡 제24번 다단조 K.491’(손아진)은 오케스트레이션이 특히 풍부한 작품으로 모차르트 협주곡 중 가장 장엄하면서도 깊이 있는 색채를 지녔다. 마지막 무대는 그의 마지막 협주곡인

‘피아노 협주곡 제26번 내림나장조 K.595’(임기욱)이다. 완숙한 경지에서 쓴 작품답게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선율로 삶의 성찰과 평화를 담아낸다.

아미치 디 피아노는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음악적 교류를 이어가는 단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모차르트 협주곡의 다채로운 매력을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신수경 전남대 교수

정오의 햇살 아래 울려 퍼지는 합창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V...25일 광주비엔날레 광장

디자이너 형태와 색으로 조화를 빛낸다면, 합창은 사람의 목소리로 화음을 엮는 예술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존과 어울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서로를 향한 열린 시선, 경계를 허무는 화음이 정오의 광장을 채운다.

디자이너 형태와 색으로 조화를 빛낸 예술이라면, 합창은 사람의 목소리로 화음을 엮는다.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공존과 어울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서로를 향한 열린 시선, 경계를 허무는 화음이 정오의 광장을 채운다.

광주시립합창단(지휘 이준)은 오는 25일 오후 12시 30분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기획연주회V ‘정오의 휴식: Choir Time’을 선보인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을 맞아 마련된 특별 무대로 서로 다른 형태의 예술이 만나 도시의 풍경을 더욱 다채롭게 확장하는 순간을 선보인다.

2005년 첫선을 보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문 비엔날레다. 전세계 디자이너와 연구자, 창작자들이 모여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는 국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수많은 해외 전문가와 관람객이 광주를 찾는 가운데 이번 합창 무대는 디자인의 도시이자 예향의 도시 광주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시립합창단이 야외무대에서 꾸준히 선보여온 인기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짜였다. 로시



이준 부지휘자

니의 ‘월리엄 텔 서곡’과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로 합창제 시작해, 소프라노 정지희가 ‘O mio babbino caro’, 알토 오지영이 ‘Ei dia que me quieras’, 소프라노 장미화가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를 불러 다채로운 감성을 더한다.

이어지는 이중창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은혜와 테너 유정석이 ‘Time to say Goodbye’를, 소프라노 윤은주와 바리톤 김대성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선사한다. 남성 4중창 무대에서는 ‘Beautiful’과 ‘아름다운 나라’가 울려 퍼지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후반부는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곡들로 꾸며진다. 아바(ABBA)의 명곡 ‘Dancing Queen’부터 ‘대성당들의 시대’, ‘비행기’까지, 친숙한 선율이 흥겹게 울려 퍼지며 시민들에게 자연스러운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시립합창단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석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공연·전시 할인권 19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문체부, 미사용시 자동 소멸

공연·전시 할인권의 사용 기한이 오는 19일 정까지로 다가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연·전시 할인권 사업의 1차 발행 사용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8일 공연 1만원, 전시

3000원 상당의 할인권 160만장을 배포한 바 있다. 1차 발행 할인권은 오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유효하며, 티켓링크 등 온라인 예매처에서 11월 30일 이내 관람 예정인 공연·전시에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19일 이후 사용되지 않은 물량을 활용해 오는 25일부터 2차 발급을 시작한다. 2차 발행부터는 할인권이 매주 목요일 새로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11월 27일까지 매주 발급이 이어지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마한까지로 소멸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